

### 3차, 가죠!

**어**느 식사모임을 마치고 "2차, 하죠" 제안한 후, 다른 식탁으로 옮겨 좀 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바쁜 식당이라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에서, 동석하신 모장로님이 "3차"를 제안합니다. 양해를 구하며 "3차, 다음에"라고 미루었는데,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. 마음 급한 주말과 연말에는 "2차"라는 제안이 나올까봐 내심 초조해 집니다. 올 해 마지막 목회편지를 통해 두 가지 속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. "죄송합니다"와 "감사합니다"입니다.

**전**교인 심방을 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. 피차의 사정으로 반도 마치지 못한 채, 올해는 새가족 심방, 환우 및 유고 심방과 모임참여 등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. 일대일로 만나지 않으면 깊이 있는 만남은 거의 불가능합니다. 소그룹도 지속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흐릅니다. 그런 아쉬움을 채우는 방법이 2차, 3차모임을 갖는 것인데, 3차는 꿈도 못 꿍니다. 주일 한 번의 인사로 목회를 꾸려가는 것에 대해 아쉽지요. 많이 죄송합니다.

**당**회에서 끝이 없을 감사표현에 대해 우려를 나누었습니다. 도매급으로 감사하자니 성의가 없고, 소매급으로 인사하자니 끝이 없습니다. 백번 공감하기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려고 합니다. 한 해 동안 부족한 저와 교역자들의 설교를 기쁘게 듣고 순종과 함께 격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. 구역과 선교회 그리고, 위원회를 통해 잠잠히 희생으로 섬겨 주신 것, 감사합니다. 때로 안스러웠지만 따뜻한 위로도 변변하지 못했지요. 많이 감사합니다.

**가**급적 저는 약속시간보다 일찍 나서려고 합니다. 그래야 마음에 여유가 있고, 보이는 것이 많아 과정을 누릴 수 있거든요. 하지만 시간을 재어 나가면 목적지에 늦지 않으려는 급한 마음에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고, 운전만 하게 됩니다.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. 많이 보고 들었지만 깊이 있는 사역과는 거리가 있었지요.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, 어떠셨습니까? 새해에는 더 깊은 만남을 기대합니다. "3차, 가죠!"

2019. 12. 29. 임철성 목사 올림